

1. <보기>에서 음의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 |
|--------|--------|
| ㄱ. 등용문 | ㄴ. 한여름 |
| ㄷ. 눈요기 | ㄹ. 송별연 |

- | | |
|--------|--------|
| ① ㄱ, ㄷ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ㄴ, ㄹ |

2. 표준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풀꽃아[풀꼬다]
- ② 옷 한 벌[오탄벌]
- ③ 넓둥글다[넙뚱글다]
- ④ 늙습니다[늙씀니다]

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 놓아라.
만약 내어 놓지 않으면
굽고 구워 먹겠다.

- 「구지가」 -

- ① 향가 발생 이전의 고대시가이다.
- ② 환기, 명령, 가정의 어법을 지닌 주술적 노래이다.
- ③ 음악, 시가, 무용이 모두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④ 고조선 꽈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순수 서정시가이다.

4. 밑줄 친 단위성 의존 명사의 수량이 적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고등어 한 손 < 양말 한 탄 < 바늘 한 쌈 < 북어 한 꽤
- ② 고등어 한 손 < 양말 한 탄 < 북어 한 쾌 < 바늘 한 쌈
- ③ 고등어 한 손 < 북어 한 쾌 < 양말 한 탄 < 바늘 한 쌈
- ④ 고등어 한 손 < 바늘 한 쌈 < 양말 한 탄 < 북어 한 쾌

5. <보기>에 제시된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 |
|------------------|
| ㄱ. 최인훈의 「광장」 |
| 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
| ㄷ. 한강의 「소년이 온다」 |
| ㄹ. 염상섭의 「삼대」 |

- ① ㄱ → ㄷ → ㄹ → ㄴ
- ② ㄱ → ㄹ → ㄷ → ㄴ
- ③ ㄹ → ㄱ → ㄴ → ㄷ
- ④ ㄹ → ㄴ → ㄱ → ㄷ

6. <보기>에서 설명한 문학 갈래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갈래이다. 고려 후기에 성립되었지만, 조선 시대의 새로운 지도 이념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더욱 융성해졌다. 3장 6구의 절제된 형식과 유장한 기품을 특징으로 하고, 여러 장을 한 편에 담은 연장체 형식으로도 창작되었다.

- | | |
|----------|------------|
| ① 「한림별곡」 | ② 「월인천강지곡」 |
| ③ 「상춘곡」 | ④ 「도산십이곡」 |

7.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현재 그녀는 건강이 매우 좋다.

- ① 그녀의 성격은 더할 수 없이 좋다.
- ② 서울 간 길에 한 번 뵈올 땐 혈색이 좋으셨는데?
- ③ 다음 주 토요일은 결혼식을 하기에는 매우 좋은 날이다.
- ④ 대화를 하는 그의 말투는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좋았다.

8. <보기>의 밑줄 친 ㉠~㉡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기>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야, 고운 해야. 너가 오면 너가사 오면, 나는 나는 ㉢ 청산이 좋아라. 훨훨훨 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칡범을 따라 칡범을 따라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뛰고 고운 날을 누려 보리라.

- 박두진, 「해」 -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9.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는 아버지의 유언
- ② 존경 받는 사람이 되었다.
- ③ 남에게 존경 받는 사람이 돼라.
- ④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

10. <보기>의 주된 설명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우리는 좋지 않은 사람을 곧잘 동물에 비유한다. 욕에 동물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동물을 나쁘게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좋은(선한) 것일까? 베르그는 오히려 “나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동물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를 부정한다. 인간은 인간을 속이지만 동물은 인간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인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동물에게 더 많은 애정을 보인다. 인간보다 더 잔인한 동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필요 없이 다른 동물을 죽이는 일을 인간 외 어느 동물이 한단 말인가?

- ① 교사의 자기계발, 학부모의 응원, 교육 당국의 지원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법, 요리사의 정성이 합쳐져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 ② 의미를 지닌 부호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것을 기호라고 한다. 수학, 신호등, 언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꿀이 있음을 알리는 벌들의 춤사위도 기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바이러스는 세균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핵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이 전부여서 세포라고 할 수 없다. 먹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증식할 수 있는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야만 번식을 할 수 있다.
- ④ 나물로 즐겨 먹는 고사리는 꽃도 피지 않고 씨앗도 만들지 않는다. 고사리는 홀씨라고도 하는 포자로 번식 한다. 고사리와 고비 등을 양치식물이라 하는데 생김새가 양(羊)의 이빨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11. <보기>에서 설명한 소설의 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소설 속의 한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으로, 부수적인 인물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말한다. 주인공의 환경이나 행동 등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 ① 일인칭 주인공 시점
- ② 일인칭 관찰자 시점
- ③ 전지적 작가 시점
- ④ 작가 관찰자 시점

12. 조선 시대 대표적 문사(文士) 송강 정철이 창작한 가사가 아닌 것은?

- | | |
|----------|----------|
| ① 「속미인곡」 | ② 「면양정가」 |
| ③ 「관동별곡」 | ④ 「사미인곡」 |

13. <보기>의 ㉠~㉡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물속에 잠긴 막대기는 굽어 보이지만 실제로 굽은 것은 아니다. 이때 나무가 굽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각 때문도 아니고 눈에 이상이 있기 때문도 아니다. 나무는 정말 굽어 보이는 것이다. 분명히 굽어 보인다는 점과 사실은 굽지 않았다는 점 사이의 (㉠)은 빛의 쿨절 이론을 통해서 해명된다.

굽어 보이는 나무도 우리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의 현실이고, 실제로는 굽지 않은 나무도 하나의 현실이다. 전자를 우리는 사물이나 사태의 보임새, 즉 (㉡)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사물이나 사태의 참모습, 즉 (㉢)이라고 부른다.

	㉠	㉡	㉢
①	葛藤	現象	本質
②	葛藤	假象	根本
③	矛盾	現象	本質
④	矛盾	假象	根本

1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 사 왔다.
- ②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③ 이에서 어찌 더 나쁠 수가 있겠어요?
- ④ 정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5. <보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어 규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강낭콩, 고삿, 사글세

- 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②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③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④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16. <보기>의 ⑦에 들어갈 접속 부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격분의 물결은 사람들의 주의를 동원하고 끓어내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매우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까닭에 공적인 논의와 공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격분의 물결은 그러기에는 통제하기도 예측하기도 어렵고, 불안정하며, 일정한 형태도 없이 쉽게 사라져 버린다. 격분의 물결은 갑자기 불어났다가 또 이에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소멸한다. 여기서는 공적 논의를 위해 필수적인 안정성, 형상성, 연속성을 찾아볼 수 없다. (㉠) 격분의 물결은 안정적인 논의의 맥락 속에 통합되지 못한다. 격분의 물결은 종종 아주 낮은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밖에 지니지 않는 사건들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격분 사회는 스캔들의 사회다. 이런 사회에는 침착함, 자체력이 없다. 격분의 물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항기, 히스테리, 완고함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대화도,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격분 속에서는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의 구조를 갖춘 안정적인 우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른바 분개한 시민의 염려라는 것도 사회 전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자신에 대한 염려일 뿐이다. (㉠) 그러한 염려는 금세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린다.

– 한병철, 「투명사회」 중에서 –

- | | |
|-------|-------|
| ① 그런데 | ② 그리고 |
| ③ 따라서 | ④ 하지만 |

17. <보기>에서 설명한 시의 표현방법이 적용된 시구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가장하거나 위장하는 것이다. 즉 본래의 의도를 숨기고 반대되는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표면의미(표현)와 이면의미(의도) 사이에 괴리와 모순을 통해 시적 진실을 전달하는 표현방법이다.

- 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같이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②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김춘수, 「꽃」
- ③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 사람을 다스린다 – 김광섭, 「산」
- ④ 나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
흘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18. 유사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연결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국지색(傾國之色) – 경중미인(鏡中美人)
- ② 지록위마(指鹿爲馬) – 지란지화(芝蘭之化)
- ③ 목불식정(目不識丁) – 목불인견(目不忍見)
- ④ 폐의파관(敝衣破冠) – 폐포파립(敝袍破笠)

19.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른 하나는?

- ① 그림이 실물과 같다.
- ② 나는 학생이 아니다.
- ③ 지호가 좋을 울렸다.
- ④ 길이 매우 넓다.

20. <보기> 중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단어의 개수는?

<보기>
로봇(robot), 배지(badge), 타깃(target),
텔레비전(television), 플룻(flute)

- | | |
|------|------|
| ① 1개 | ② 2개 |
| ③ 3개 | ④ 4개 |

이 면은 여백입니다.